

# 헌덕왕[憲德王]

## 김헌창의 난으로 정치·사회적 모순이 폭발하다!

미상 ~ 826년(헌덕왕 18)



경주 헌덕왕릉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 1 개요

헌덕왕은 신라 제 41대 왕이다. 애장왕(哀莊王)대에 섭정을 하면서 정치개혁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다. 즉위 후에도 동생을 비롯한 일부 왕족들과 정치권력을 독점하면서 귀족세력을 견제했다. 이로 인해 무열왕계 등 귀족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후 김헌창(金憲昌)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자연재해와 기근이 계속되어, 곳곳에서 도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다.

### 2 헌덕왕의 가계

헌덕왕의 성은 김(金), 이름은 언승(彦昇), 시호는 헌덕(憲德)이다. 조부는 제38대 원성왕(元聖王)이고, 아버지는 원성왕의 첫째 아들인 혜충태자(惠忠太子) 김인겸(金仁謙)이다. 어머니는 성목태후(聖穆太后) 김씨(金氏)이다. 제39대 소성왕(昭聖王)은 헌덕왕의 형이고, 김수종(金秀宗, 흥덕왕興德王)과 김충공(金忠恭), 김제웅(金梯熊)은 헌덕왕의 동생이다. 왕비는 귀승부인(貴勝夫人) 김씨(金氏)로, 숙부인 김예영(金禮英)의 딸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왕비 귀승랑(貴勝娘)이 헌덕왕의 동생인 김충공의 딸이고, 시호는 황아왕후(皇娥王后)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헌덕왕의 자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자식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는 가운데, 모순되는 기록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822년(헌덕왕 14), 헌덕왕은 동생인 김수종을 부군(副君)으로 삼고, 2개월 뒤에는 김충공의 딸 정교(貞嬌)를 태자비로 삼았다. [관련사로](#) 태자비라는 표현에서 태자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 녹진(祿眞) 열전에서는 헌덕왕에게 아들이 없다며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에 부군과 태자는 같은 것으로, 김수종이 곧 부군이자 태자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 진표율사(眞表律師)를 계승한 심지(心地, 心智)가 헌덕왕의 아들이라고 하여, 헌덕왕에게 아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헌덕왕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녹진 열전의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헌덕왕에게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태자와 심지라는 두 아들이 존재했고, 머느리로 정교부인이 있었다고 하겠다.

헌덕왕은 809년 왕위에 올라 826년까지 18년간 신라를 통치했다. 826년 10월, 왕이 죽자 천림사